

도내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확대

전북교육청, 컴퓨터 1070대 보급 · 인터넷 통신비 1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이며, 인터넷 통신비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컴퓨터 보급 규모를 지난해 500대에서 1,070대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를 위해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터넷 통신비는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회선 기준으로 월 1만7,600원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경단 과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배움의 기본 조건"이라며 "경제적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일 대학본관에서 류두현 총장과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척 데네더르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및 문화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싸울아비' 공연 인연으로 공식 파트너십 맺다

전주대,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 교육·문화교류 MOU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가 몽골 오문과비 아이마의 중심 도시인 달란자드가드시(시장 척 데네더르즈)와 글로벌 교육 및 문화 교류 협력을 본격화한다.

전주대는 지난 2일 대학본관에서 류두현 총장과 몽골 달란자드가드시 척 데네더르즈(Ts. Denedorz)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및 문화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주대학교

'싸울아비' 태권도 시범단이 달란자드가드시의 초청을 받아 현지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문화 예술 공연을 개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공연은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다졌고, 이를 공식적인 협력 틀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이 모아지면서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교육 발전과 학술 협력, 활발한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 '싸울아비' 태권도 시범단 기반 공동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프로그램 개발 △ 강국의 및 학술 토론·역량 강화회 위한 교직원·연구원 교류 △ 어학연수 및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포함 학생 교류 촉진 △ 세미나·워크숍·컨퍼런스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공동 개최 △ 학술 간행물 및 교육 자료 교환 등이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몽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해양수산연구원
국가자격시험 인프라 협력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국가자격시험 인프라 공유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기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지역 확대를 통해 전북과 인근지역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자격시험(CBT) 시행을 위한 인프라 공동 활용 △ 시험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산·기술 협력 △ 양 기관 간 정보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으로, 양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립군산대는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 전신실습실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전북 지역 해기사시험 CBT 운영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지역 내 국가자격시험 기반 확충과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연구원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총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시험 운영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전국 단위 시험 인프라 균형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김만호 기자

전북대, 과기부 'TLO 혁신형' 선정

우수 연구성과 발굴 기술이전·창업 있는 전주기 사업화 고도화
첨단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피지컬AI 중심 혁신 체계 구축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백기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지원하는 2026년도 기술경영혁신사업(TLO 혁신형)에 선정됐다. 기술경영혁신사업(TMO)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해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1차 연도 5억원을 포함해 2년 6개월간 총 2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참여 연구실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유망기술 발굴부터 시장 검증,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 창업 후속 R&D 연계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내 우수 특허와 연구성과를 단순 보유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수요와 시장성을 기준으로 선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실질적 이전과 창업 성과를 높이고, 대학 기술사업화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강화한

다는 구상이다.

전북대는 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팀 5개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은 AI 기반 연구실 구축 플랫폼, 전북수도권 산생협력 플랫폼, JB Mini Tips 타운 구축 등 혁신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형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기태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전북대학교가 축적해 온 우수 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산학협력단 기술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 TLO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기업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술이전·창업 지원체계를 확대해 지역거점국립대학교로서 지역 혁신과 공공기술 사업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좌절 않고 공부할 수 있길"

전북대 김원호 명예교수, 의과대학 후배 위한 장학금 1억원 기부... 부모 뜻 이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인 김원호 명예교수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배우자인 서울영상의학과 박인숙 원장과 함께 평생 이웃을 돌보며 나눔을 실천해온 부모님의 뜻을 잇기 위해 마련돼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인 김원호 명예교수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에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자 하는 기부자의 진심이 오롯이 담겼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부담을 느끼는 후배들이 좌절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 훗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이번 나눔의 출발점이 됐다.

김원호 명예교수는 전북대 의과대학 8회 졸업생으로, 전북대병원 심장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지역 의료 발전에 헌신해왔다. 박인숙 원장 역시 전주시 금안동에 30여 년간 서울영상의학과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

진과 의료 발전에 힘써왔다.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온 두 사람은 퇴임을 전후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서암(김희주)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장학금은 두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가치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김원호 명예교수와 박인숙 원장은 "부모님께서는 생전 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라는 뜻을 남기셨다"며 "그 뜻을 이어 후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

하고 훗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부된 발전기금은 '서암(김희주) 장학금'으로 운영되며,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후배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자의 귀한 뜻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생 위기상황 대응 지역 지원기관 정보 총망라

전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기관 안내서 발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지원기관 정보를 한데 모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계한 새로운 활용 방식도 도입해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장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기관 안내서를 발간해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 학생 지원 유관기관에 배부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학습과 심리·정서 건강, 경제적 어려움, 돌봄, 다문화 특수교육 등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는 지역기관 정보가 체계적으로

로 담겼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절차를 비롯해 기관별 주요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연락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통합지원과 학습·진로, 심리·정서, 건강·안전, 돌봄·보호, 다문화 청소년활동·자원봉사, 특수교육, 장학금 정부 복지서비스 등 10개 분야에 걸쳐 모두 162개 지역기관의 지원 정보를 수록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관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에는 QR코드도 함께 제공돼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책의 한계를 보완해 학교와 지역기관 간 연계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생성형 AI를 활용

한 새로운 지원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교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연수에서 생성형 AI 활용법을 안내했으며, 교사가 노트북·M 등 생성형 AI에 안내서를 업로드한 뒤 학생의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자료를 분석해 적합한 지원기관과 사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생 지원이 필요한 때마다 적합한 기관과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채신영 교육장은 "학생 한 명의 어려움을 학교민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역기관 안내서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자담배도 안돼"... 전북교육청, 흡연예방 시스템 강화

교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원 대상 흡연예방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부터 7월 한 달간 교감과 흡연예방·생활지도 담당교사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대응 및 흡연예방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근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와 관련 법규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대응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의 합력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와 확산 양상, 전자담배와 신종 마약의 연계 위험성 개정된 전자담배 관련 법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심화형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도 실시한다. 참가 교원들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흡연 권유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익히는 등 몰입형 교육을 통해 현장 지도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밖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흡연예방 교육자료를 제공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흡연 학생에게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연 상담을 지원해 금연 실천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중심의 흡연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건강 보호 문화 확산에 힘쓰는 계획이다.

임영근 과장은 "전자담배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라며 "교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의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교고생 문예 백일장

우석대학교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발굴하고 미래 문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문예 백일장을 연다. 우석대학교는 '제28회 전국 교고생 문예 백일장'을 개최하고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운문과 산문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일장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운문부는 시 3편, 산문부는 A4 용지 2매 내의 분량의 수필 1편을 접수한다. 작품 주제는 자유이며, 참가자는 우석대학교 문예 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응모 작품과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별 통보도 함께 이뤄진다.

시상은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뉘며 장원과 차상, 차하 장려상을 선정한다. 장원은 부문별 평에게 상장과 상금 50만원, 차상은 상장과 상금 20만원, 차하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상은 부문별 10명을 선정해 상장과 문화상품권 20원을 지급한다.

특히 장원 수상자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돼 문학 인재 유치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